

제목: "절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말씀: 사도행전 16장 25-34절

간수장은 죄수가 도망한 줄을 알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듣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아무리 절망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생명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변화 합니까?

1. 그는 _____ 했던 사람입니다. (27절)
2. 그는 _____ 을 활짝 열었던 사람입니다. (30절)
3. 그는 온 _____ 을 생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33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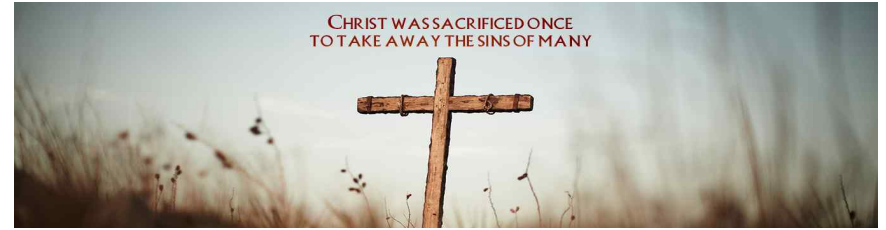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힘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16장 25-3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16 25-34 신약 215 페이지 Presider
- 말씀 "절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happiest man in Phillipi Rev. Kim
- 헌금/기도 (특순: 이경희, 서주영)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21년 된 나의 의자)

가라지(Garage) 세일에서 21년 전에 15불을 주고 구입한 의자를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의자는 길게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를 위하여 오랫동안 앉아 있기 위하여 편안한 의자를 찾던 중 동네 토요일 가라지 세일에서 구입한 의자였다. 하지만 그 의자는 15불짜리가 아니었다. 적어도 100불은 넘을 좋은 의자인데 중고품이니 그렇게 팔았던 것 같다.

그 의자는 지난 21년 동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설교를 준비 할 때에도 항상 그 의자에 앉아서 했고, 고민을 할 때에도, 재미있는 것을 볼 때에도, 또한 많은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 의자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의자가 불편해서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의자가 이제는 정말 오래 되었는가 보다. 얼마 전부터 약간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조금씩 빠거덕 거리며 오래 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중고 의자를 보기 시작 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찾던 의자를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서 20불에 구입을 했다. 그런데 그 의자도 새 것은 150불이 넘을 좋은 의자였다. 그런데 그 의자를 집 안에 들여 놓으며 21년 된 의자를 차고로 옮겼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아쉽고 미안하고 섭섭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아직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의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물건에 불과하지만 나 나름대로 그 의자에 정이 붙었었나 보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준 의자이고 나의 기쁨과 슬픔을 전부 보았던 함께 한 의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자가 아무래도 더 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나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 전부 잘 챙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 나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퍼부어 주었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 지나가는 인생 한 부분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고 고마운 분들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분들을 전부 찾아가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 한 순간 그 의자를 보면서 그 의자를 버릴 수 없었던 마음과 같이 잊으면 안 될 분들을 하지만 잊어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내 마음에 내린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그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을 잘못 이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나의 21년 된 의자와 같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 없다. 오래된 의자를 문 밖에 내다가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 12장 4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 하신다. 또 다시 기억하고 본질에서 떠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 21년 된 의자는 다음 가라지 세일에 15불에 내 놓으려고 한다. 충분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의자는 나에게 지난 21년 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새로 등록된 가정

편연옥 West Linn, OR (503)312-8984

6. 5/6월 행사

6월 중 새 가족 환영회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